“조계종연구소는 종단 심장부…미래 제시”

7월 9일 연구소 출범 기념 세미나
진우 스님, “불교 위기 속 디딤돌”
이명호 소장 “사회적 실천 함께”
보일 스님 “자비, AI 개발 반영”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 조계종연구소가 7월 9일 개최한 ‘조계종연구소 출범 의미 그리고 기능과 역할’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중장기 발전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했다.

“조계종연구소가 조계종의 싱크탱크로서 우리 종단의 미래를 위한 대안 제시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기관이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7월 9일 서울 아미드호텔 2층에서 열린 조계종연구소 출범 기념 세미나에서 기조 발제자로 나서 연구소에 대한 앞으로의 바람을 전했다.

이날 진우 스님은 “불교는 1700년 동안 우리나라 정신문명을 이끌어 왔지만 종교인구 감소라는 세계적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였다고 안타까움을 전하고 근본적인 문제로 출가자 감소와 포교 전법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부재를 꼽았다.

진우 스님은 “수행자가 없는 불교, 종단으로 막다른 곳까지 간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든다”면서 “전근대적인 출가 권장은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종단과 불교를 잘 아는 싱크탱크가 모여 토론하고 대안제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계종연구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 본말사 3500여 개 사찰 유지관리와 신도 교육, 그리고 재정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전하며 조계종연구소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할 것을 기대했다. “불전, 등값, 관람료만 가지고 살것인가”를 되물은 진우 스님은 재정문제 해결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스님은 “종단적으로 경제적인 수입 구조를 반드시 늘려야 포교, 전법, 교육, 사찰도 유지될 수 있다”면서 “정밀하게 접근해 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 또한 조계종연구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조계종연구소를 ‘종단의 심장부’라고 표현했다. 스님은 “연구소가 바람이나 꿈으로만 자리매김할 것이 아니고 일을 반드시 실천하고 현실화 해 우리 종단이 미래불교, 미래 종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면서 “연구소가 조금 더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비화 해 종단이 해나갈 일에 디딤돌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어느 총무원장이 오던지 조계종연구소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보장받고 이어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초대 연구소장 원철 스님이 발판을 잘 놓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는 조계종연구소가 어떻게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해야 하는지 종단 내외의 연구 전문가와 종단 주요 소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들은 세미나에서 조계종연구소가 불교적 가치에 기반한 공공성 회복과 사회적 실천 전략을 생산하는 ‘불교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호 인드라망연구소장은 ‘조계종연구소의 기능과 역할’에서 “조계종연구소는 불교의 지혜로 종단과 사회를 읽고 답을 제시하는 전략 싱크탱크라는 사회적 위상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능 내실화를 위해 △연구소의 제도적 위상 강화와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종단 구성원과 학계·시민사회와의 연결 확장 위한 개방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연구-교육-실천 연계 조직 문화 조성으로 종단 정책 실행력 제고를 강조했다.

이욱 한국종교문화연구소장은 ‘한국 불교의 당면 과제에 대한 연구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종교 인구 감소 △인간과 자연 공존 △새로운 미디어 출현 △정치적 양극화와 우경화 시대 등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해결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 사회적 실천이 함께 이루어질 때 불교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의미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비롭고 지혜로운 AI개발과 활용을 위한 불교적 제언’을 주제로 발제한 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은 AI 윤리 선언 제안을 통해 인류 공동체를 향한 자비의 실천과 AI 기술 미래에 대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주체가 되길 기대했다.

보일 스님은 AI가 인류 문명을 변화시키고 있는 시대, 종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불교계는 불교의 핵심 가치인 자비와 지혜가 AI 개발과 활용의 과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4월 1일 조계종 총무원 삼원통합과 함께 출범한 조계종연구소는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포교원 포교연구실, 교육원 불학연구소 등 종단의 연구소가 각기 해왔던 기능을 통합한 기구로 명실상부 조계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태고종 상진 스님, 후반기 집행부 인선

7월 3일 종무회의서 공표
신임 포교원장 능해 스님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임기 후반부 집행부 인선이 단행됐다.

상진 스님은 7월 3일 서울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2층 총무원장실에서 종무회의를 열고 임기 후반부 집행부 명단을 발표했다.

2기 집행부는 행정부원장 능해 스님이 포교원장으로, 행정부원장에 총무부장 도성 스님이 자리하며 종단 종무행정과 포교 종책을 강화했다. 기획실장 영범 스님은 재경부원장으로, 사회부장 도휘 스님은 사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법규위원장에는 육화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상진 스님은 종단 대변인에 성천 스님, 사회부장에 법연 스님을 새로 지명했으며 총무원장 특보단의 종책 실장에 철오 스님, 종책특보에 김명순, 문화사회특보에 인용민, 사회복지특보에 박창민을 각각 지명했다.

다만 포교원부원장, 사회복지원장, 기획실장, 총무부장, 홍보부장, 전법사부장은 당분간 공석으로 남겨뒀다.

신중일 기자

안병구 밀양시장 종정 공로패

7월 10일, 사명대사 선양 치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이 7월 10일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관 3층에서 안병구 밀양시장에게 종정 공로패를 수여했다.〈사진〉

안병구 밀양시장은 사명대사 선양 홍보와 관광 활성화에 전념해 사명대사의 위상을 널리 알린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밀양강 오딧세이’를 개최하고 유적지와 표충사 호국성지를 정비하는 데 크 공을 세웠기에 그 공을 치하하고자 종정 공로패를 수여했다.

사명대사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사명대사-칼을 품고 슬퍼하다’는 5월 23일 제67회 밀양아리랑축제에서 첫선을 보여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3000여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전한 바 있다.

진우 스님은 “호국정신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려야 한다”면서 “호국불교를 알리는 밀양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안병구 시장은 “올해 드라마 제작도 시작되니, 많은 기대를 해 달라”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출가학교 교구별 개설·포교사 제도 개선 논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7월 10일, 직지사서 84차 회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등운 스님, 고운사 주지)는 7월 10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84차 회의를 열고 종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출가와 포교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출가학교는 교구본사를 중심으로 개설을 유도, 본사의 여건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충남권에선 수덕사, 전남권에선 송광사가 출가학교 개설을 준비 중이며, 점차 권역별로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포교부장 남전 스님은 “출가학교를 통해 출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실제 출가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본사와 협력해 운영 모델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행 준비 중인 본사들을 모범 사례로 정착시키고, 프로그램을 가다듬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송광사 주지 무자 스님은 다문화시대에 맞는 출가 접근 필요성을 제시했고, 금산사 주지 화평 스님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종단 차원의 통합형 출가학교 운영을 제안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출가학교는 출가자 배출은 물론 친불교 문화를 확산시키는 장”이라며 프로그램의 유연성을 강조했다.

포교사 운영 체계 정비를 통해 포교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도 오갔다. 일부 주지스님들은 포교사단이 사찰과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갈등을 빚는 사례를 언급하며 포교사의 기본 자질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남전 스님은 “현 포교사 제도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 포교사와 사찰이 함께할 수 있도록 포교사단과 긴밀하게 협의를 거쳐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기념관 화재 복구 진행상황, 제1회 총무원장배 전국 불자 자선 파크골프 대회 추진·협력 계획,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전통다비작법보존회 설립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천 직지사=김내영 기자

마곡사 주지 후보에 원경·제민·태진·혜룡 스님


원경 스님


제민 스님


태진 스님


혜룡 스님

7월 17일 산중총회 개최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 주지 후보에 선출하는 산중총회가 7월 17일 열리는 가운데 원경 스님과 제민 스님, 태진 스님, 혜룡 스님이 차기 주지에 도전장을 냈다.

마곡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자암 스님)는 7월 5~7일, 후보등록을 실시했다. 4명의 후보가 출마하면서, 주지후보는 경선으로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마곡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는 7월 17일 오후 1시 경내 관음전에서 진행되며, 이날 차기 주지후보가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다목적 원톱 시스템 이란?

다목적 염불법당시스템은 전기 연결없이 간단하게 들고 다니며 사용함으로 법당 50평 사용 및 산신각, 소각장, 야단법석, 방생용, USB사용과 염불소리 연출, 설법, 성우소리 연출, 편집, 녹음기능 및 전기연결로는 법당서 계속사용, 전기없이 야외에서는 9시간 사용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무선 2 / 유선 2 /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색소폰 무선전용마이크)
실내 50평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정가(스탠드 포함) 98만원

방송장비
KBS 및 각 방송사 방송기재 납품업체
마이크 공장직영, Multi-Cube
각종 방송시설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TEL : (055) 343-1191
H·P : 010-9471-2026
010-7740-2026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반려견 합동 천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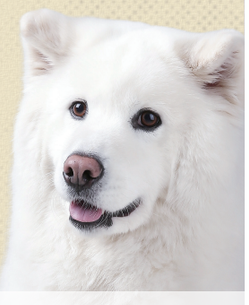


반려견 전용 법당 신설

“불교적으로 동물과 인간은 형상만 다를 뿐 본질은 같다” 또한 “一切衆生 悉有佛性·일체중생 실유불성” 세상 모든 만물에 불성이 있다. 는 부처님의 말씀을 새겨 견주님 곁을 떠나버린 소중한 반려견의 다음 생을 위하여 양평 수불사는 반려견 전용 법당을 신설하여 반려견 합동 천도재를 봉행합니다.
반려견을 위해 천도재를 지내주시면 반려견의 업식이 맑아지고 업장소멸이 되어, 육도 윤회하여 축생 또는 인간의 몸으로 다음 생에 태어나 더 나은 삶을 살아 갈 것입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견주님의 슬픈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어 항상 행복한 삶을 이루시길 기원드리며, 반려견 합동 천도재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반려견 합동 천도재 꼭 하실 분
- 반려견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견주님
- 지난 날 반려견의 천도재를 못하신 견주님
- 반려견 유골을 간직하고 산골하지 못하신 견주님
- 반려견 극락왕생을 위하여 법당에 위패를 모실 견주님



접수기간
1차 : 2025년 07월 10일 ~ 08월 30일
2차 : 2025년 10월 01일 ~ 11월 10일

합동 천도재 일시
1차 : 2025년 09월 07일 (일) 오전 10시
2차 : 2025년 11월 16일 (일) 오전 10시

합동 천도재 동참비 10만원 (50명 한정)
입금계좌 농협 351-0866-6696-13 수 불 사
장 소 경기 양평군 양평읍 약수사길 24-40 수 불 사
전화접수 ☎ 031)773-8387 / H.P 010-4461-3825